

논평 : 在日 濟州人 사회에서의 巫俗

이 광 규*

제주도인 1/3은 제주도에, 1/3은 육지에, 3/1은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다 한다. 일본 오오사카 이쿠노지방은 제주도 사람의 집중거주지역으로서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그리고 역사 위치와 조선시장의 유명한 곳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흔히 다른나라의 소수민족이 identity를 유지하는데 인류학적 입장에서 서너가지로 얘기한다. 첫째로 아주 원초적인 것으로 어려서부터 부모에 익숙한 음식, 둘째로 인간의 가장 중요한 통과 의례, 세째로 종교기능, 여기서 제주도 분들이 오오사카에서 identity 유지하는데 어떻게 종교를 유지 발전시켜 왔는가를 잘 지적해 주었다. 일본은 제일한국인의 어려운 지역으로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심한 차별과 자기네들의 경쟁이 된다면 갖은 수단을 가지고 못살게 준다. 그리고 그네들이 기피하는 선달직업을 갖고 곳곳이 살아가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

제주도와 오오사카는 굉장히 가깝다. 일제시대부터 배가 제주와 오오사카 왕래가 빈번히 있었다. 아이가 나면 부모에게 말기고 자란다음 부모에게서 데려갔다. 2세이면서 한국인의 identity라든지 언어를 가지고 있다. 특수사정인 종교가 가지는 전통문화 유지 기여하는데 좋은 지적이다.

다만 아쉬워 하는 것은 질문에 답하는 성격이 아니고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까 아쉬운 문제만 지적하고자 한다.

朝鮮寺中心으로해서 오오사카 분들이 同鄉 Network가 어떻게 되었느냐 조사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대개 오오사카에는 제주도분들이 도·군·고향사람들과 도민회가 있는데 제주도민만은 里民會, 곧 리별로 조직되었는데

* 서울대

이것이 Network와 朝鮮寺중심의 Network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냐 그리고 귀화된 사람은 제외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둘째로, 곳의 자체, 대전제 곳을 보려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나라가 종교심이 강한데 덴 오지 檀家(寺)중심으로 많이 퍼져 있는데 오오사카 제주사람의 종교에다가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까, 제주의 곳과 오오사카의 곳, 일본의 곳이 어떻게 변질되었는가, 구체적인 내용비교 설명이 있으면 좋겠고, 어느 영역이 유지되고, 어느 영역이 변질되며, 어느 영역이 수용되어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첨가해서 언어말씀 하시면서 오오사카가 제주도보다 더 제주적인 것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신앙에서도 혹시 그렇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